‘노인복지 20년’ 정관 스님 퇴임

6월 16일, 종정 공로패 수상
승려복지기금 등 2000만원 나눔도
6월 18일, HW컨벤션센터서 퇴임식
“수행자로서 나눔·복지 활동 지속”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관 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전달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함께해 축하했다.

임은호·이현희 기자

20년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이끌어 온 정관 스님이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관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2007년 개관과 함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소임을 봐 온 정관 스님은 6월 30일 관장직에서 퇴임한다. 정관 스님은 20년 동안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며 불교 사회복지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진우 스님은 이날 공로패를 전달하며 “정관 스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결같은 원력과 헌신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인간 존엄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지역 사회와 한국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귀감이 됐다”며 치하했다. 이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재단 산하 여러 복지관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기관으로 손꼽힌다”면서 “행정 전반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격려했다.

정관 스님은 “스님으로 살아왔기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수행·정진할 수 있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함께해 준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다. 앞으로는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소림사 살림을 잘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과 승려복지기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6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정관 스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정년 퇴임식’도 거행됐다.

정관 스님은 퇴임사를 통해 “이제 복지관을 떠나지만, 스님과 수행자로서 소림사 소임에 진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뒷배경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김형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 정관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일동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관 스님의 원력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도륜 스님은 “정관 스님은 복지 일선 현장에서 앞세우기보다 함께 걸었으며, 가르치기보다 몸소 실천했다”며 “자비의 향기는 종로 골목을 넘어 사회 곳곳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스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광용 스님은 “도량 곳곳에 심은 사랑, 열정, 현신의 씨앗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축하했다.

퇴임식 이후에는 정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서울 소림사가 주최한 ‘서울시민불교문화축제’가 진행됐다. 시민들도 함께 불교사회복지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역 사회 속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자리로, 축제에는 국악 공연과 선명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13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제4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9개 지구에서 200여 명이 동참했다.

106주년 대불청 “부처님 가르침 삶 속에”

6월 13~14일, 신라불교초전지
제44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사)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가 창립 106주년을 맞아 전국 청년불자들과 “시대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불청은 6월 13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신라불교초전지의 법향, 대불청의 초발심으로!’를 주제로 제4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성지인 신라불교초전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구 청년불자들이 참가해 수행과 포교, 봉사의 원력을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불교의 자비와 지혜는 더욱 필요한 가치”라며 “청년불자들이 서로의 원력을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의문에서 청년불자들은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돌아보는 공감의 가치는 오히려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전해온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길수 대불청 중앙회장은 “전국청년불자들이 선배들의 원력을 이어받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청년불교의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구미 도리사를 찾아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구미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은 “청년불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내가 이 시대의 아도화상이다’라고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박지운기자

비구니 스님 보금자리 ‘나란다 수행관’ 4호관 개관

비로자나국제선원, 6월 13일
1·2관 홍제동, 3·4관 금호동


비로자나국제선원은 6월 13일 ‘나란다 수행관’ 제4관을 개관하며 수행관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학업·전법 활동을 지원하는 ‘나란다 수행관’이 네 번째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원력의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은 6월 13일 나란다 수행관 제4관을 공개하며 수행관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란다 수행관은 2018년 2월 자우 스님의 원력으로 개관해 현재 1·2관은 서울 홍제동에, 3·4관은 금호동에 자리하고 있다.

나란다 수행관은 한때 폐관 위기를 겪었으나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원희·임영자 불자와 후원자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조원희 불자는 2023년 본인 소유의 공간을 무상임대해 제3수행관 개설에 힘을 보탰고, 올해 83세인 임영자 불자는 5000만원을 후원하며 총 12개의 방사를 갖추고 48명의 스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수행관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관장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선주 스님, 동국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와 박사과정을 겸하고 있는 반야·진정·성조 스님과 석사과정의 덕민·불수 스님, 중앙승가대에서 불교학강의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규은 스님, 사찰음식 전문화에 힘쓰는 하경·정재 스님, 영적 돌봄활동과 명상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석사과정 중인 범준 스님, 염불과 불교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지선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수행관은 거주 공간을 넘어 수행공동체 역할도 하고 있다. 스님들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어 학업과 전법포교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동국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나란다봉사단’은 올해부터 동국대 곳곳을 청소하며 불교적 실천과 봉사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자우 스님은 “도심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주거와 생활 문제로 도심 전법 현장에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있다”며 “나란다 수행관 후원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스님을 키우고 ‘도심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박지운 기자

진관사서 “백초월 스님 애국 정신 계승”

6월 17일 제35회 호국기원법회
순국선열 추모, 장학금 전달도



서울 은평구 불교계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백초월 스님의 애국 정신을 계승해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스님·삼천사 회주)와 조계종은평구협의회(회장 보관 스님·수국사 주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위선옥)는 6월 17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제35회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에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한다”라며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은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문에 나선 성운 스님은 주먹을 들어보이며 “주먹을 쥔 자리는 암흑이다. 모든 세상사에 집착해 쥐고 있으면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며 “지나간 것에 매여 구속과 집착하지 말고 주먹을 펴 환한 세상에 나를 들여 놓아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삼천사 성운장학재단(이사장 성운 스님)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삼천사 동출 스님은 보훈부 추천 유가족 자녀 10명에게, 법해 스님과 보관 스님은 은평구청 모범공무원 가족 17명에게, 강순옥 인덕원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녀 11명과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추천 모범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평구청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원 3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참석 대중들은 위선옥 은평구청 불심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의 불굴의 독립정신과 애국혼이 서린 태극기가 숨겨져 있던 자랑스러운 호국의 성지”라며 “그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참석한 사부대중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자비행을 실천한 것”이라고 발원했다. 박지운 기자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해체 보존된다

2023년 12월 비신 동결파손
6월 16일 해체…3년간 복원



지난 2023년 급격한 한파로 동결파손된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사진〉가 해체 보존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 이하 센터)는 6월 16일 진행 일정을 공개했다.

낭원대사탑비는 통일신라 말 낭원대사(834~930)의 행적을 기록한 문화유산으로, 고려 태조 23년(940)에 건립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중순, 대관령 인근 강릉 보현사 권역에 발생한 급격한 한파로 비신(碑身) 내부 수분이 얼어 팽창하면서 동결파손이 발생했다. 당시 기온은 이틀 사이 10도 이상 급격히 하강했으며, 이후 X자형의 관통균열이 확대되고 신규 균열도 발생하며 탑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연 2회 정기조사와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E등급(수리 필요)’ 판정을 내렸다. 정밀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실내에서의 해체 보존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센터로 이송이 결정됐다.

낭원대사탑비 해체 작업은 6월 16일부터 실시됐으며 이수와 비신, 귀부 전체 부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신은 균열이 심화된 상태를 고려해 전용 프레임과 가압조절장치를 적용한 맞춤형 해체 틀을 사용해 안전하게 해체된다.

해체된 부재는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대학생 불자, 교내 근로자 선물 ‘훈훈’

동국대 WISE캠 불교동아리
6월 11일 선물 전달식 개최



대학생 불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내 현장 근로자들에 감사 선물을 전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 불교동아리는 6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선물 전달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학 구성원의 일상을 지원하는 환경미화, 경비, 통학버스 운행, 택배 종사자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동아리 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교내에서 ‘작은 정성 큰 행복’ 캠페인을 펼쳐 소액 모금 활동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 메시지 작성 행사를 진행했다.

모금에는 학생과 스님,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불교동아리 학생들은 모금액 전액으로 건강 음료, 커피믹스 등 감사 선물을 마련했다.

하수령 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타’ 회장은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땀 흘려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어주시는 또 하나의 가족 같은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성제 스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대견했다”면서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큰 행복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청와대 경비단, 낙산묘각사서 템플스테이 국가 중요시설의 철통 경비를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대원들이 밤샘 근무 후 휴식 대신 산사를 찾아 마음을 내려놓았다.

관음종 낙산묘각사는 “6월 18일 101경비단 5대대 5제대 대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팀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마음수련 체험’ 당일 템플스테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밤샘 근무를 마친 직후 찾아온 귀한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찰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4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된 이날 템플스테이는 108배 및 108염주 꿰기, 다도 체험 등이 이어졌다. 신중일 기자